

2008년도 한국영양학회 심포지움



▶ **심포지움-3**

식품산업과 영양표시제도

<http://www.kns.or.kr>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3】

식품산업과 영양표시제도

(주)영양과 미래 대표

정·해·랑

국내에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가 시행된 지 10 여년이 경과하면서, 영양표시를 한 가공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표시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제품 선택에 이용하는 정도는 아직 미흡하다. 한편, 식생활이 만성질환의 발병이나 예방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높아져 식품의 영양표시제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식품의 영양표시 대상식품을 확대하고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는, 1974년 미국이 가공식품에 임의 영양표시제를 도입한 시기, 1990년 미국이 “영양표시 및 교육법”을 제정하여 전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 한 시기를 거쳐, 2000년 대에는 전 세계가 비만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항하는 주요 수단으로 영양표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영양정보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세계보건총회는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를 채택하고 소비자에게 식생활에 관한 정확하고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교육, 마케팅, 광고 이외에도 식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포괄적인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의 영양적 이점이나 위해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주장을 금하는 조항 등이 들어 있다. 또한 총회는 산업체에게 제품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유리당과 나트륨의 함량을 낮추고 영양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다. FAO/WHO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는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와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 영양표시와 관련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영양 강조표시한 식품 이외에는 임의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화하는 안, 표기 시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뿐 아니라 당,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까지 모두 표기하는 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양소 표기순서나 활자크기를 조정하는 일 혹은 단일의 심볼 등을 이용하는 안, 비전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나 감소와 관련된 영양소의 영양소기준치를 개발하는 안, 과일이나 야채, 전곡 혹은 첨가당을 원재료 목록에 표기하는 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NRVs의 개정 작업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식품표시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식품표시가 필수정보를 분명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서 시민이 균형된 식사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8년 1월 새로운 영양표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표지 전면에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및 나트륨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표지 뒷면에는 영양기준 (guideline daily amounts, GDAs) 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모색 중

제품 표지를 통해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를 제품 선택에 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비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영양정보면에서 열량정보를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표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영국은 주요 영양소 정보를 간편하게 전달하기 위한 신호등 표시제를 고안하였다. 신호등 표시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임의 표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식품산업은 영양표시제도의 시행, 발전의 핵심 주체

국내에 영양표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식품산업체는 표시기준에 부응하는 한편으로 제품의 영양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다. 한국 기업이 “영양”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초보 수준이며, 다농, 크라프트, 유니레버 등과 같은 세계적 선도기업은 제품의 영양조성을 기업의 주요한 부문으로 간주한다는 입장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 펄시코 사는 오렌지주스에 풍부한 칼륨을 적절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제품 표시에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오렌지주스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산업체가 영양표시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영양표시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제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야 하며 중장기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국민의 건강상태 혹은 과학의 발전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허용오차 범위, 분석방법 개발 등 실무자에 필요한 정보나 훈련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소비자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

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성을 증대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산업체 뿐 아니라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참여하는 캠페인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가 확대될 것이다.

맺는 말

개인 수준이나 사회 수준 모두 건강하고 건전한 식품을 선택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려는 노력이 계속 될 것이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광고의 제한, 영양조성에 따른 학교내 판매 금지, 외식의 영양표시제 도입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식품 산업체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마지 못해 수용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강지향적”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관련기관 뿐 아니라 코덱스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양표시제와 관련한 일련의 작업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편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